

세기말 격동 속 구조재편 움직임 활발

1996년의 출판계 예측

경기전망은 '흐린후 맑음' 악재 최대한 극복하고 호재 활용

지난해 혹독한 침체를 겪고 난 출판계는 96년을 여느해와는 다른 설렘으로 맞이한다. 출판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를 예상하는 가운데 장기적인 발전곡선의 시작점을 그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체로 시장경기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새해 출판시장 역시 95년과 별반 다를 바 없거나 오히려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본다. 많은 출판인들은 이를 '거품출판'이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구조조정기의 혼란으로 파악한다. 출판계 자체의 산업 경쟁력 약화나 유통계의 난맥상 등을 극복할 공동대책을 마련하자는 요구가 높은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96년의 경기침체 예측의 요인으로는 ▲4월의 국회의원 선거 ▲애틀란트 올림픽 ▲7월부터 발효되는 개정 저작권법 ▲출판사들의 빈부 양극화 ▲멀티미디어 케이블 TV 보급확대 등을 꼽는다. 한편에선 경기회복의 호재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문학의 해에 따른 출판 활성화 ▲국민소득 1만불 시대의 문화적 욕구 증가 ▲다양한 독서를 요구하는 교육정책 실시 ▲물류혁명에 따른 유통비용의 절감 등의 긍정적 요인을 든다.

경기침체의 요인들을 극복하면서 각종 호재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는 개별 출판사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출판계 공동대책 마련의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형유통기구 재편 움직임 활발 파주지역 출판 인쇄 메카로 부상

올해의 가장 큰 변수는 대형유통기구들의 정비와 현대화이다. 이미 지난해 6월에 출범한 한국출판유통의 가시화와 함께 한양출판판매, 보문당, 서울출판유통 등 관리마인드를 갖춘 도매상들이 전면에 나섰다. 현대적인 대형 유통기구의 정비에 따라 출판유통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기대가 높다.

한국출판유통은 25일 창립총회를 갖고 97년 본격영업 시작을 위한 사업 개시에 들어간다. 출판협동조합의 업무 이관 문제를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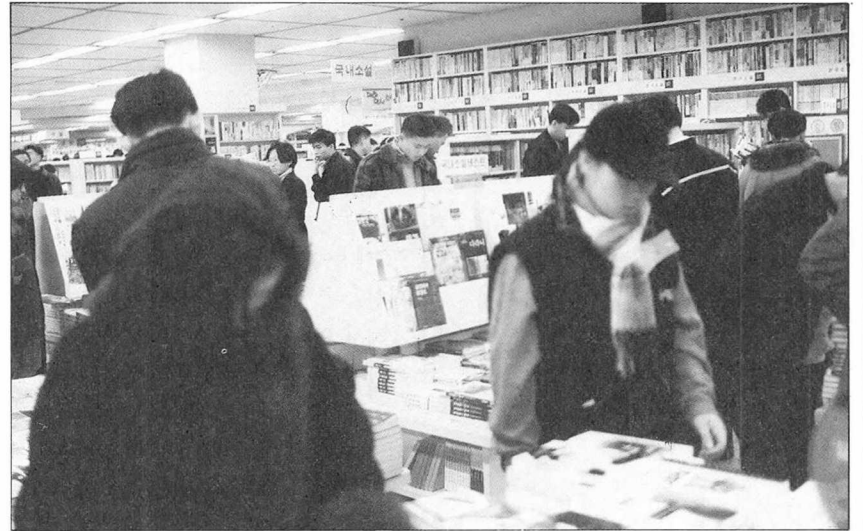
기총회에서 결의하는 절차를 거친 후 영업기반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본격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울출판유통 같은 단행본 중심의 도매기구 흡수합병도 고려하고 있다. 인수에 대한 검증을 거쳐 상반기 중 결정을 내리고 조직 정비를 마치면 가을학기부터 본격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한국출판유통측은 파주단지 부근에 임대형태로 5천~1만평 규모의 창고를 겸한 사업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파주단지가 완공된 후 입주를 위한 자금확보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97년 1월 1일 영업개시를 위한 마무리를 마칠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출판유통측은 현대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마스터플랜도 단계별로 개발할 계획인데, 네덜란드의 센투럴 북하우스를 모델링으로 기술제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출판유통의 가시화와 함께 한양출판판매(대표 홍승대)와 서울출판유통(대표 최선호) 보문당(대표 이상규) 등 비교적 현대적 시스템을 갖춘 대형 도매기구들이 도매시장의 대세를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작은 규모의 도매상들이 도태됨으로써 특화·전문화된 도매기구들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유통질서를 형성하리라는 전망이다. 한편 지역 도매기구의 재편도 점쳐진다. 부산의 경우, 한림서원과 한성서적 등 굵직한 도매상들이 사상지역으로 이전, '사상지역'이 부산의 새로운 유통 중심지로 떠오르게 된다.

파주 일산지역은 또다른 출판 인쇄산업단지의 메카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이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사업추진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오는 2월 14일 총회에서 올해의 사업계획안이 통과되면, 국가산업단지 지정절차를 밟아 4~6월쯤 시범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시범단지 건설추진본부를 조직, 분양받은 토지의 사용승락을 받으면 공사입찰을 통해 건설업체를 선정, 공사에 착공하게 된다. 단지측은 공사착공 시기를 10월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파주단지 인근에는 뿌리와날개가 대규모 창고를 준비중으로 알려졌다. 15개 중견출판사들이 공동설립한 문화유통북스가 건물완공을 앞두고 있다. 한양출판



'문학의 해'를 맞아 지난해 퇴조현상을 보였던 소설분야의 상승세가 예상된다(위). 올해도 해외의 각국 출판계와의 활발한 국제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매는 지난 12월 사무실과 창고를 파주군으로 옮겨 전공정의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했다. 또 디딤돌, 나남을 비롯한 출판사들의 공동창고도 부지를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파주단지가 구체화되기 이전에 이미 출판 인쇄 유통 등 관련업체들이 모여들어 파주지역은 올해를 기점으로 새로운 출판메카로 확실히 부각될 듯하다.

국내 출판의 세계화 행보 빨라져 시장개방의 파동도 절감하는 해

세계화의 물결은 올해 출판계에 또다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해의 첫 서울국제도서전에 이어 오는 5월(18일~24일)에는 '96 서울국제도서전이 열릴 예정이다.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릴 국제도서전에는 지난해보다 많은 23개국 520업체의 외국출판사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여

기에는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동남아와 중동 호주와 뉴질랜드 등의 나라들로 포함된다. 또한 지난 1월 '96 대만 국제도서전을 시작으로 동경국제도서전, 미국서적상협회도서전, 북경국제도서전, 프랑크푸르트도서박람회 등 올해도 해외도서전에 대한 출판계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문학의 해를 맞아 우리 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작업 또한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진행되리라 예상된다. 문예진흥원과 대산재단의 번역사업이 올해 더욱 활발할 것으로 보이고, 문학의 해 조직위측의 '번역원' 설립안도 나오는 등 이 작업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계화란 또다른 의미에서 개방의 변혁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95년 서점 시장개방에 이어 96년은 인쇄시장 개방 원

년이다. 지난 1월1일부터 오프셋 인쇄업과 경인쇄업이 외국자본에 개방됨으로써 기존 인쇄체제에 충격을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판인쇄는 내년부터 부분개방되긴 하지만 이미 미국의 유명한 인쇄사인 오벨리가 경기도 성남에 공장을 마련, 인쇄종사자를 모집중이라는 소식이다.

97년의 출판개방을 앞두고 외국 관련사들의 국내 진출을 위한 문두드림도 물밑에서 더욱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대형 유통회사와 출판사들의 국내 개설 및 합작 움직임에 대한 소문은 벌써부터 떠돌았고, 지난 연말 독일의 베르텔스만 그룹이 열었던 북클럽 전시회도 국내 진출의 가두보 마련을 위한 노크의 하나로 해석하는 시각이다.

소설 상승세에 실용서 다각화 거품 빠지고 새로운 출판흐름 형성

많은 출판인들은 2,3년간의 출판 거품현상이 빠지면서 안정된 출판 흐름을 이룰 것으로 본다. 우선 최근 급격히 하락한 문학류가 '문학의 해'를 맞아 다시 부상하리라 예상한다. 이미 서점가에서는 소설 상승세를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출판사들도 올해 의욕적인 문학도서를 기획하고 있다. (본지 1월 5일자 참조) 신진과 중진작가의 고른 작품발표가 기대되며 전집류에서부터 새로운 형태의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학물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설시장의 부활과 함께 각종 실용서들의 부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화 추세에 따른 각종 어학서들의 신장세도 점쳐진다. 또 경제, 컴퓨터, 취미, 여행 등 생활과 밀접한 실용서들은 더욱 세밀화 다각화하여 약진이 예상. 이밖에 서점가에서는 소책자 형태의 교양물도 독자 호응이 크리라 기대한다. 전체적으로는 각 출판 장르에서 고르게 기획물이 쏟아지리라는 예측인데 이는 최근 3,4년의 불황을 정면 돌파하는 전략의 결과로 해석된다. 거품시장을 노린 일회적인 베스트셀러보다는 세부시장의 틈새공략으로 독자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96년의 출판종수 증가가 두드러지리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반면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으로 대부분의

출판인들은 번역물, 특히 학술서들의 위축을 우려한다. 번역물 시장의 전반적인 약화는 이미 지난해 판매동향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학술서의 경우, '재미있고 가벼운' 책들에 밀린 채 출판사들을 거의 고사직전까지 몰고 갔다. 이에 따라 가치, 문예출판사 등 학술서 출판사들이 '학술출판협의회' 같은 모임으로 내구력을 결속, 위기에 공동 대처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중형서점 증가의 새로운 지형도 서비스 경쟁력 강화로 불황 맞서

올해 서점계의 지형도는 중형서점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초대형서점의 건립이 더이상 힘들고, 소형서점이 사라지면서 50,60평 정도의 중형서점이 증가하리라는 예상이다. 쏟아지는 신간량을 소화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문배송 시스템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100% 진열효과를 얻는 중형서점에 대한 선호도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 소형서점들의 중형화 바람도 예상된다. 더불어 특화를 지향한 전문서점의 시도도 조금씩 생겨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잇따른 서점폐업으로 위축돼 있는 서점계는 올해 서비스 강화에 전력, 새로운 경쟁력에 승부를 걸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전국서점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전국 서점들의 전산화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50% 정도 실시하고 있는 ISBN 바코드 부착을 90%까지 끌어올릴 예정. 6월말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바코드 부착이 안된 책은 평대에서 책꽂이로 올리는 등 판매촉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ISBN의 철저한 실시로 개별 서점들의 전산화가 완료되면 전국 서점들, 도매상, 유통기구와의 전산망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공급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밖에 디지털 영상시대의 추세에 따른 전자출판 양상의 비약적인 발전도 예상되는 분야이다. 출판계 내부에서는 창작과비평사, 범우사, 문예출판사, 민음사 등 창립 30주년을 맞은 굵직한 단행본 출판사들이 많아 다양한 행사도 기대된다.

—김지원 기자



현대 과학 세계로의 지적 대탐험 사이언스 마스터즈

이제 『사이언스 마스터즈』에서 과학의 신비를 하나하나 풀어가십시오.

인류의 무한복제는 가능한가?
지구의 최후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인류의 시작, 그 흔적은?
당신이 궁금해하는 미지의 과학세계로 떠나십시오.
쉽게 풀어 쓴 과학이야기—「사이언스 마스터즈」
세계적인 석학 22명이 최신이론을
쉽고 재미있게 얘기해 드립니다.

**전세계 26개국
동시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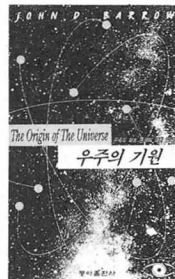
사이언스 마스터즈 시리즈 '95 신간 안내



지구 최후의 운명에 관한 시나리오
마지막 3분
2126년 8월 21일, 거대한 혜성과 지구가 부딪친다. 남은 시간은 3분, 지구의 운명은?
폴 데이비스 지음



유전자로 본 진화의 메커니즘
에덴 밖의 강
과연 인류는 무한대로 복제가 가능한 것인가? 유전자의 결합과 경쟁, 그리고 새로운 종으로의 분리는?
리처드 도킨스 지음



우주 최초의 흔적에 대한 탐사
우주의 기원
코비위성이 전한 우주의 비밀은 무엇인가? 우주의 시작, 초팽창, 오늘날의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 비밀의 기원을 찾아간다.
존 배로우 지음



화학 사냥꾼이 들려주는 최초의 인간이야기
인류의 기원
인류는 과연 20만년 전 아프리카의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6만년 동안 지구의 주인이었던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진 이유는?
리처드 리키 지음



물질의 핵심에 대한 본격 해부
원소의 왕국
물질의 핵심으로의 신나는 여행! 저명한 과학자, 훌륭한 여행 가이드와 함께 떠나는 원소의 세계를 기대해 보자.
피터 앳킨스 지음



수학적 시각으로 본 자연의 패턴
수학의 본성
왜 많은 꽃들의 꽃잎이 5개 혹은 8개이고, 극수수에만 6개 혹은 7개인가? 왜 눈송이는 육면체인가? 자연의 수학적 본성은 과연 무엇일까?
이언 스텐워트 지음

11월 발간 예정!!

11월 발간 예정!!

■ 정가 각권 6,800원

사이언스 마스터즈 시리즈 전22권

- ▶ 1995년 7월 발간
① 「마지막 3분」: 폴 데이비스
② 「에덴 밖의 강」: 리처드 도킨스
③ 「우주의 기원」: 존 배로우
④ 「인류의 기원」: 리처드 리키

- ▶ 1995년 근간 예정
⑤ 「원소의 왕국」: 피터 앳킨스
⑥ 「수학의 본성」: 이언 스텐워트
▶ 1996년 이후 발간 예정
⑦ 「지능의 출현」: 윌리엄 캄빈
⑧ 「세포의 진화」: 린 마굴리스
⑨ 「대기와 환경」: 스티븐 슈나이더
⑩ 「뇌 속의 세계」: 콜린 블랙모어
⑪ 「컴퓨터의 미래」: 다니엘 힐리스
⑫ 「시간의 시작」: 조지 스투트

- ⑬ 「암분자의 기원」: 로버트 와인버그
⑭ 「인지화학」: 메러리 겔만
⑮ 「인지과학」: 다니엘 데넛
⑯ 「성의 진화」: 자레드 다이아몬드
⑰ 「사회 변화의 적응」: 메리 베이트슨
⑱ 「생활사의 유형과 방향」: 스티븐 골드
⑲ 「컴퓨터와 인공지능」: 마빈 민스키
⑳ 「적응」: 조지 윌리엄스
㉑ 「언어와 정신」: 스티븐 핑커
㉒ 주제 선별중

동아출판사

편집 (02) 866-8800 (교한317)
영업 (02) 861-4818 / (02) 853-5608